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

김 영 숙 윤 분 하 이 금 희 조 한 익[†]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중등학교 남교사 168명, 여교사 213명이고 전체교사는 381명이다. 연구결과 중등교사의 신경증, 교사갈등은 심리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실성과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방성, 호감성, 외향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과 호감성은 교사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의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갈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경증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방성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과 호감성은 교사갈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갈등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의 의의,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한익, (52828)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Tel : 055-772-2132, E-mail: h1652@gnu.ac.kr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높은 실정이며 이러한 스트레스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발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하다(강주현, 2013; 박기민, 2000; Lazarus & Folkman, 1984).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책임지고 있는 중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싸안으며 학업성취도 향상,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 진로 지도, 심신의 성장 등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중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등학교 교사들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 잡무,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등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지쳐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소진이라고 한다. 심리적 소진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 상태이다(Maslach & Jackson, 1981;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중등학교 교사들은 학교라는 조직 속에서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소진을 쉽게 경험하게 되는데(안선희, 김지은, 2007; Coulter & Abney, 2009; Schaufeli & Bakker, 2004) 이런 교사의 소진은 만성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고 시간이 갈수록 소진의 정도는 심해진다(Fernet, Guay, Senécal, & Austin, 2012). 심리적 소진의 초기에는 피로, 강박적 생각, 비난, 우울 등 신체적 정신적 징후가 나타나고 직무수행 능력의 저하, 의욕 상실, 회피 등으로 이어지며 교직 열정, 몰입, 의욕, 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심한 경우 휴직을 하거나 교직을 그만두기도 한다(김정휘, 김태욱,

2006; Hock, 1988; Schwab, Jackson, & Schuler, 1986). 따라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교사, 학생, 학교조직에 여러 역기능적 측면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격은 다양한 상황과 사건 및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개인의 전형적인 사고, 감정, 행동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신소정, 2008; McCrae & Costa, 1997). 성격은 특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고 한 Allport(1966)를 시작으로 Eysenck (Eysenck & Eysenck, 1985)의 P-E-N 모델을 거쳐 최근에는 인간의 성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5요인 성격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Costa & McCrae, 1985, 1992; Goldberg, 1993; Miserandino, 2012). 5요인 성격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으로 구성되어 있다(송선희, 하대현, 최형주, 2004; Costa & McCrae, 1992; John, 1990; John, Naumann, & Soto, 2008). 신경증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외향성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호감성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얼마나 잘 지내는지와 관련되며,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 규칙,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사의 성격과 소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경증이 높을수록 교사소진은 높아지고 성실성, 외향성, 호감성이 높을수록 교사소진은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다(신소정, 2008; 이영란, 2006; Zellars, Perrewé, & Hochwarter, 2000). 박소영(2013)의 연구에서도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은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된 이유는 교사의 성격에 따라 심리적 소진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교사의 성격과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것으로 측정오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격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측정오차를 통제하고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갈등이란 경쟁, 반대, 불화, 충돌, 싸움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자원의 희소성, 목표, 기대, 혹은 상대에 대한 바람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대립상태를 말하는 것으로(Collins, Laursen, & Mortensen, 1997; Hampton, 1987) 학교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학교는 하나의 특수한 조직이며 교육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행정가, 지역사회, 교육청 등 다양한 구성원 및 단체들과 상호작용을 한다(안창선, 심미옥, 2003; 이윤식, 2001). 이와 같은 학교 내·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교사가 겪는 갈등은 다양한데 이를 교사갈등이라고 한다. 교사갈등은 관료적인 조직형태에서 오는 관리자나 행정가의 일방적 지시나, 불공정한 업무분담,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교권침해, 부족한 행정지원, 과도한 업무(권혁제, 2001; 최인양, 2004; Owens & Valesky, 2010), 동료교사들과의 가치관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안창선, 심미옥, 2003; 이상철, 주철안, 2007),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소극적인 학습태도(권혁제, 2001) 등에서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역할갈등이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는데 교사들의 역할갈등과 직무스트레스는 적개심, 불

안, 긴장,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하고 교사의 효능감과 성취감을 저하시키며 심리적 소진, 회피,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동택, 2008; 구본용, 김영미, 2014; 안창선, 심미옥, 2003; 이지연, 황현숙, 장진이, 2012; 주동범, 임성택, 2002). 하지만 역할갈등은 개인 내적인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이며,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김정숙, 유금란, 2010; 김현숙, 2013) 교육구성원간의 갈등인 교사갈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들이 느끼는 갈등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심리적 소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중등학교 교사들이 어떠한 갈등들을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소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격은 직무스트레스(이혜련, 2013; 이화진, 2011; 김현숙, 2013), 스트레스 대처방식(박소영, 2013; 이혜련, 2013; 이화진, 2011; 정순우, 2012), 갈등관리유형(백은영, 2004; 정범석, 양기동, 2008), 직무만족도와 직무충실(나길운, 1992; 여태철, 박정태, 2005)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등 교사의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은 문제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적극적 대처방식을 취하며 신경증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소극적 대처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영, 2013; 이화진, 2011; 이혜련, 2013; 정순우, 2012). MBTI 성격 중에서 감각감정형(SF)과 직관감정형(NF)이 직무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감각사고형(ST)과 직관사고형(NT)는 부적 상관

나타냈으며, 교사의 성격특성도 직무만족도와 직무충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길운, 1992; 정법석, 양기동, 2008). Ghorpade, Lackritz 및 Singh(2011)에 의하면 대학교수들도 성격에 따라서 갈등상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정서적 소모를 줄이고 호감성은 비개인화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성격과 교사갈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등교사의 성격에 따라 학교라는 조직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사갈등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교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교사갈등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교사갈등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직수행의 효율성 저하와 이직, 학생들의 학업적 성장 저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이성은, 1995). 하지만 교사갈등을 잘 관리하면 학교에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Longaretti & Wilson, 2006). 이러한 연구들과 관련하여 환경의 변화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적응능력인 자아탄력성은 교사들의 갈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Maddi와 Kobasa(1984)는 갈등과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은 긍정적이고 변형적인 대처를 한다고 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나 갈등적인 경험을 덜 위협적으로 느끼며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박은혜, 전셋별, 2010; 이주연, 지명원, 2012)을 통해서 볼 때 교사갈등이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교

사갈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적응적 대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교사갈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감소요인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등 교사의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문제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을 취하며(박소영, 2013; 이화진, 2011; 이해련, 2013; 정순우, 2012) 신경증은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 완화적 대처방식을 보인다고 하였다(이화진, 2011; 이해련, 2013; 정순우, 2012). 또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신경증적 경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이화진, 2011; 이해련, 2013). 성격 5요인과 사고양식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교사는 창의적이며, 성실하고 외향적인 교사는 명확한 지침에 의해 과제를 수행하고 신경증적인 교사는 사고양식과 부적인 상관관이 나타났다(이정규, 2007). 허창구, 이철희, 신강현, 이종현(2010)의 연구에서도 외향성이 신경증에 비해서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교사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학교라는 조직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사갈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교사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교사의 성격에 따라서 교사의 갈등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갈등의 매개효과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어떠한 성격특성에 따라서 갈등상황이 심리적 소진을 악화시키는지 또는 감소시키는지를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교사성격, 교사갈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도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자아탄력성은 넓은 의미로는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자 하는 역동적 능력이며,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른 자극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Rutter, 1985). 자아탄력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을 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심리적 소진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주, 김봉환, 2010; 이민정 2014; Maslach, Schaufeli, & Letter, 2001). 지명원과 이주연(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민정(2014)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은 높은 부적 관계를 보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상실과 같은 소진을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김선은, 2011).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적극적,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교사갈등 대처방식과 같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갈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적극적으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교사성격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는 연구되고 있지 않지만 김해경과 서경현(2013)의 연구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회피성 성격을 완충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볼 때 교사성격, 교사갈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등학교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에 있어서 성격과 교사갈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느 정도 이러한 어려움을 완충시킬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가, 교사의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갈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중등교사의 성격에 따른 교사갈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자아탄력성이 교사들의 갈등을 어떻게 절충시켜 줄 것인지에 관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사의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갈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중·고등학교 교과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등학교 교과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경험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서 교사갈등과 소진이 달라질 것으로 본 것이다. 중학교는 12개 학교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남교사는 80명, 여교사는 153명 총 233명이다. 고등학교는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교사는 88명, 여교사는 60명 총 148명이다. 연구대상을 위한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남교사 168명, 여교사 213명으로 전체 381명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5요인 성격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5요인 성격검사는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NEO-FFI(NEO Five-Factor Inventory)를 안창규와 이경임(1996)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성격의 Big 5라고 불리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의 5요인을 측정하며 성격요인별 12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증 문항의 예로는 ‘나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고, 외향성은 ‘나는 내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 이다. 개방성은 ‘종종 새롭거나 낯선 음식을 먹어보려 한다’ 이고, 호감성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한다’ 이며, 성실성은 ‘나는 내 물건들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둔다’ 이다. 5요인 성격검사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신경증

은 .838, 외향성은 .804, 개방성은 .694, 호감성은 .692, 성실성은 .696이다.

교사갈등척도. 본 연구에서 교사갈등은 Miskel과 Gerhardt(1974)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권혁제(2001)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교사간의 갈등은 7문항, 학부모와의 관계갈등은 4문항, 학생과의 관계 갈등 5문항, 관리자와의 관계갈등 6문항, 행정실과의 관계갈등 3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와의 갈등 문항의 예로는 ‘교사 상호간의 세대차이, 가치관, 사고방식, 신념, 행동양식의 차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거리감이 있다’ 이고, 학부모와의 갈등은 ‘학부모가 자기 아이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이다. 학생과의 갈등은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교사의 가르치려는 의욕이 상실된다’ 이고, 관리자와의 갈등은 ‘교장, 교감이 행정적 권한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차단한다’ 이며, 행정실과의 갈등은 ‘행정직원의 태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다’ 이다. 교사갈등척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교사와의 관계는 .733, 학부모와의 관계는 .701, 학생과의 관계는 .781, 교장, 교감과의 관계는 .853, 행정실과의 관계는 .871로 나타났으며 교사갈등 전

표 1. 연구대상

	남자	여자	전체
중학교	80	153	233
고등학교	88	60	148
전체	168	213	381

체신되도는 .895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Klohnen(199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박현진(1996)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자신감은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은 8문항, 낙관적 태도는 10문항, 분노조절은 2문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에 관한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R)’ 이고, 대인관계효율성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R)’ 이고, 낙관적 태도는 ‘나는 종종 전공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낀다(R)’ 이고, 분노조절은 ‘나는 종종 버럭 화를 낸다(R)’ 이다. 자아탄력성 척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자신감은 .833, 대인관계 효율성은 .817, 낙관적 태도는 .845, 분노조절은 .835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 전체 신뢰도는 .926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소진 척도. 본 연구에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김두천(199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정서적 고갈은 9문항, 비인간화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상실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고갈에 관한 예시 문항은 ‘나는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느낌이다’ 이고, 비인간화의 예시 문항은 ‘나는 종종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며, 개인

적 성취감 상실의 예시 문항은 ‘나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R)’ 이다. 심리적 소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Cronbach’ 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고갈은 .866, 비인간화는 .734, 개인적 성취감 상실은 .744로 나타났고 심리적 소진 전체 신뢰도는 .865로 나타났다.

모형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중등교사의 성격이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교사의 성격이 교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연구들(박소영, 2013; 백은영, 2004; 이화진, 2011; 이혜련, 2013; 정범석, 양기동, 2008; Langford & Glendon, 2002), 교사의 성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연구들(박은혜, 전셋별, 2010; 이주연, 지명원, 2012; Maddi & Kobasa, 1984), 교사의 성격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연구들(김지선, 이영애, 2012; 박소영, 2013; 임지윤, 도승이, 2014; Connor-Smith & Flachsbar, 2007; McCarthy & Lambert, 2006)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교사갈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권동택, 2008; 구분용, 김영미, 2014; 김현숙, 2013; 이민정, 2014; 이은희, 이주희, 2001; 최인선, 2013),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김지선, 이영애, 2012; 김해경, 서경현, 2013; 박현주, 김봉환, 2010; 이민정 2014; Maslach, Schaufeli, & Letter, 2001). 교사갈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선행 연구들에 따른 것이다(박은혜, 전셋별, 2010; 이주연, 지명원, 201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도출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1은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 상관분석, 모형의 적합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의 매개효과 검증은 위해서는 Bootstrap 1000번을 실시하고 최대우도 법(ML)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1.0과 Mplus 6.01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연구문제 1의 결과: 구조적 모형의 적합도

구조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변인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성격과 교사갈등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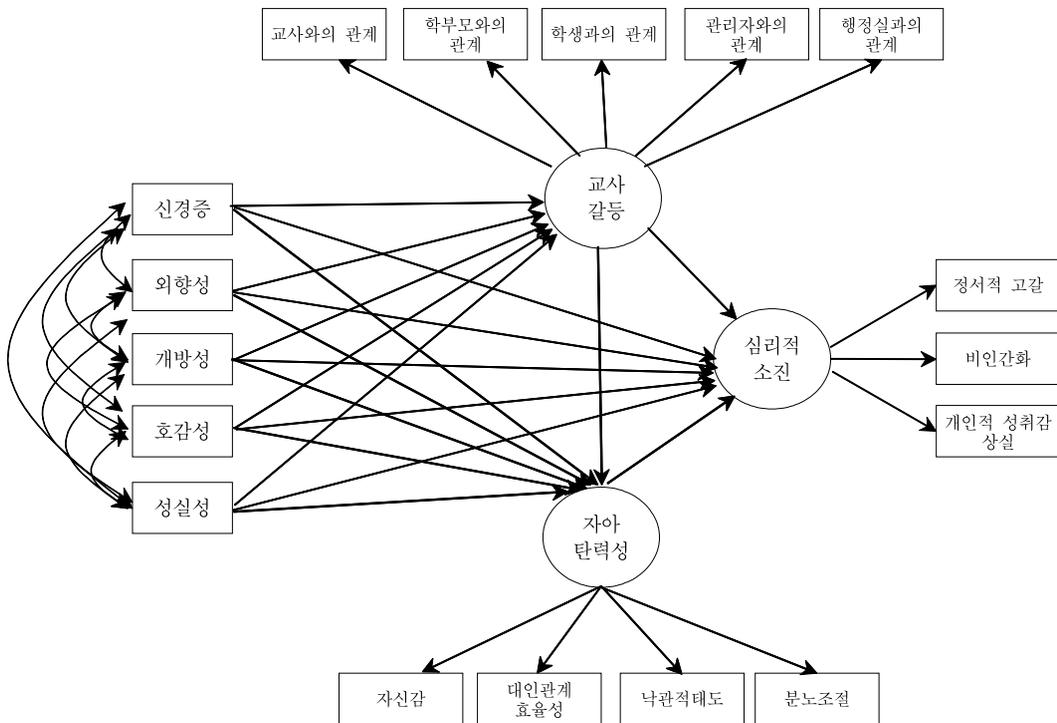


그림 1.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415($p < .05$)~.284($p < .05$)까지 나타났으며 이 중 성격의 하위요인인 개방성과 성실성은 교사갈등의 하위요인 대부분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과 자아탄력성의 상관은 -.712($p < .05$)~.530($p < .05$)까지 나타났으며, 성격과 심리적 소진은 -.499($p < .05$)~.514($p < .05$)까지 나타났다. 교사갈등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은 -.307($p < .05$)~-.105($p < .05$)까지 나타났고, 교사갈등과 심리적 소진은 .121($p < .05$)~.529($p < .05$)까지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

진에 대한 상관은 -.628($p < .05$)~-.142($p < .05$)까지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변인들의 상관은 -.712($p < .05$)~.530($p < .05$)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00 이하이고 첨도는 7.00 이하이면 정상분포곡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Chou & Bentler, 1995; Hancock & Mueller, 2006).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를 살펴 보았을 때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결측치가 없기 때문에 ML(Maximum Likelihood) 방법

표 2. 측정변수들의 통계치

구분	성격요인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교사 관계	학부모 관계	학생 관계	관리자 관계	행정실 관계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 조절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심리적 소진
신경증	1.00																
성격	외향성	-.466**	1.00														
	개방성	-.198**	.264**	1.00													
	호감성	-.455**	.344**	.267**	1.00												
	성실성	-.444**	.423**	.316**	.429**	1.00											
교사갈등	교사 관계	.217**	-.131**	-.007	-.218**	-.042	1.00										
	학부모관계	.169**	-.050	.015	-.172**	.053	.383**	1.00									
	학생 관계	.207**	-.316**	-.052	-.125	.027	.430**	.393**	1.00								
	관리자관계	.284**	-.415**	-.033	-.258**	-.138**	.552**	.386**	.500**	1.00							
	행정실관계	.210**	-.090	-.038	-.170**	-.121	.368**	.318**	.383**	.646**	1.00						
자아탄력성	자신감	-.712**	.417**	.296**	.430**	.433**	-.247**	-.201**	-.182**	-.275**	-.206**	1.00					
	대인관계 효율성	-.616**	.492**	.329**	.390**	.328**	-.250**	-.228**	-.277**	-.250**	-.188**	.741**	1.00				
	낙관적태도	-.638**	.442**	.302**	.530**	.427**	-.239**	-.168**	-.271**	-.307**	-.242**	.772**	.651**	1.00			
	분노조절	-.426**	.192**	.027	.289**	.276**	-.176**	-.147**	-.105	-.185**	-.139**	.411**	.390**	.326**	1.00		
심리 소진	정서적고갈	.494**	-.201**	-.050	-.254**	-.165**	.424**	.360**	.453**	.529**	.442**	-.438**	-.415**	-.519**	-.285**	1.00	
	비인간화	.455**	-.289**	-.190**	-.409**	-.332**	.335**	.239**	.328**	.384**	.302**	-.504**	-.478**	-.628**	-.301**	.541**	1.00
개인성취감상실	.321**	-.456**	-.292**	-.382**	.514**	.045	-.086	.121	.084	.071	-.286**	-.314**	-.421**	-.142**	.167**	.441**	1.00
평균	31.688	40.173	39.916	43.042	42.530	19.661	11.730	15.045	15.517	7.793	33.297	28.173	37.559	6.572	26.150	10.963	18.782
표준편차	6.118	5.487	4.372	4.437	4.589	3.637	2.656	3.570	4.289	2.713	4.914	4.944	5.827	1.564	6.252	3.018	3.547

* $p < .05$, ** $p < .01$.

표 3. 변인들의 정규분포 검토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교사 관계	학부모 관계	학생 관계	관리자 관계	행정실 관계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태도	분노 조절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상실
왜도	.039	-.002	.207	-.061	.105	.125	.012	-.145	.143	.220	-.571	-.137	-.292	.007	.020	.155	.060
첨도	.378	.681	-.008	-.233	.166	.058	-.128	-.024	-.058	-.410	.721	.006	-.330	-.376	-.106	-.420	-.166

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도 지수에서 χ^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표집이 크면 클수록 유의확률이 유의하게 나올 수 있어 모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 적합도 지수인 GFI와 CFI, 모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GF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RMSEA도 .05~.08이면 적합도가 양호

한 것으로 판단한다(문수백, 2009; Hong, Malik, & Lee, 2003).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294.098(p<.01)$, GFI=.920, CFI=.929, RMSEA=.077(90% CI=.068~.08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5와 같다.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이 교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148(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호감성이

표 4. 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지수	χ^2	df	p	GFI	CFI	RMSEA(90% CI)
연구모형	294.098	90	.000	.920	.929	.077(.068~.087)

표 5. 연구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신경증	.021	.025	.050
외향성	-.058**	.026	-.148**
개방성 → 교사갈등	-.006	.029	-.010
호감성	-.138**	.033	-.244**
성실성	.004	.032	.007
신경증	-.066**	.008	-.564**
외향성	.015**	.005	.117**
개방성 → 자아탄력성	.025**	.006	.150**
호감성	.019**	.007	.115**
성실성	.011	.006	.071
신경증	.062	.040	.112
외향성	-.030	.030	-.048
개방성 → 심리적 소진	-.003	.034	-.004
호감성	-.073	.038	-.095
성실성	-.129**	.037	-.173**
교사갈등 → 자아탄력성	-.053**	.013	-.187**
심리적 소진	.561**	.111	.413**
자아탄력성 → 심리적 소진	-1.523**	.502	-.320**

**p<.01.

교사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244(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경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564(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외향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117(p<.05)$, 개방성은 $.150(p<.05)$, 호감성은 $.115(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중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성실성만이 $-.173(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사갈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187(p<.05)$,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413(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320(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경증($\beta=.050, p>.05$), 개방성($\beta=-.010, p>.05$), 성실성($\beta=.007, p>.05$)이 교사갈등에 미치는 영향, 성실성($\beta=.071, p<.05$)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신경증($\beta=.112, p>.05$), 외향성($\beta=-.048, p>.05$), 개방성($\beta=-.004, p>.05$), 호감성($\beta=-.095, p>.05$)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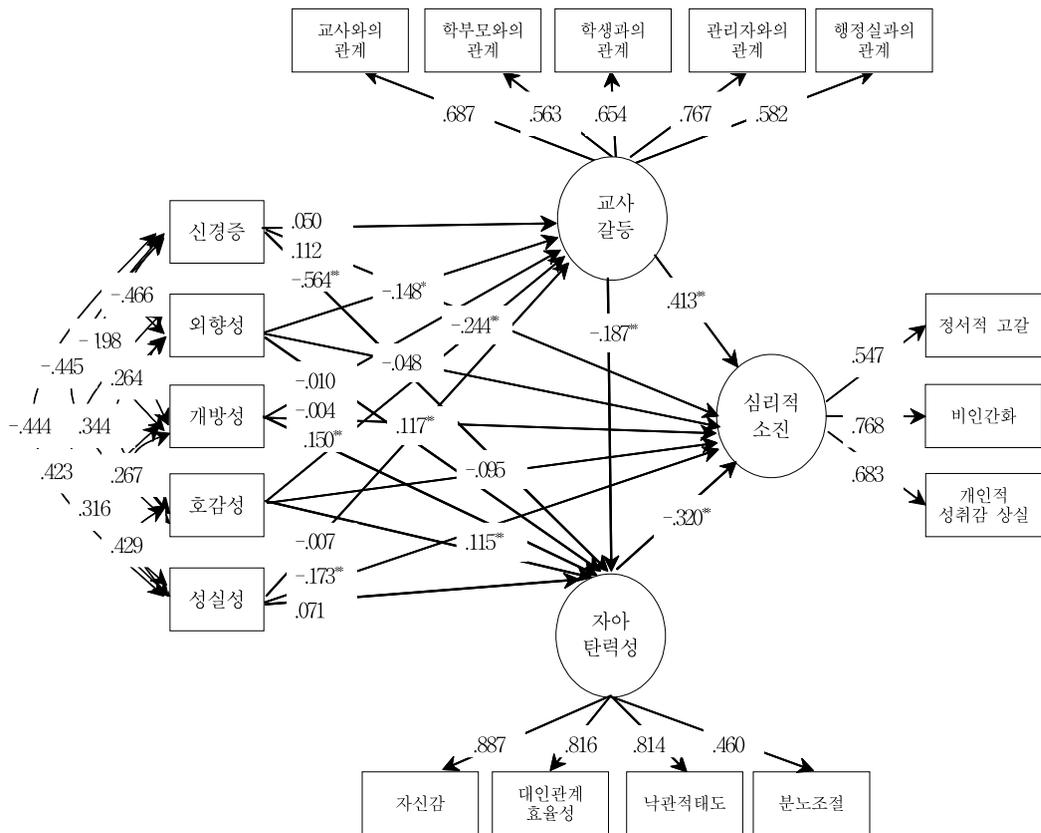


그림 2.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최종모형

연구문제 2의 결과: 매개효과 검증

논 의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갈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갈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중등교사의 성격 중에서 신경증과 개방성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경증: $\beta=.180, p<.05$; 개방성: $\beta=-.048, p<.05$). 외향성과 호감성은 교사갈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외향성: $\beta=-.061, p<.05$; 호감성: $\beta=-.100, p<.05$). 교사갈등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060, p<.05$).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성격, 다양한 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교사의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갈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사의 성격 중에서 외향성과 호감성은 교사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교사갈등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교사들의 외향적이고 호감적인 성격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호감성이 높은 교사는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가

표 6.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갈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매개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β)
신경증→교사갈등→심리적 소진	.012	.021	.021
신경증→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101**	.037	.180**
외향성→교사갈등→심리적 소진	-.038*	.019	-.061*
외향성→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23	.012	-.038
개방성→교사갈등→심리적 소진	-.003	.019	-.004
개방성→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37*	.017	-.048*
호감성→교사갈등→심리적 소진	-.077**	.027	-.100**
호감성→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28	.018	-.037
성실성→교사갈등→심리적 소진	.002	.019	.003
성실성→ 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17	.012	-.023
교사갈등→ 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81*	.035	.060*
신경증→교사갈등→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02	.003	.003
외향성→교사갈등→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06	.003	-.009
개방성→교사갈등→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00	.003	-.001
호감성→교사갈등→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11	.006	-.015
성실성→교사갈등→자아탄력성→심리적 소진	.001	.003	.001

* $p<.05$, ** $p<.01$.

있고(이혜련, 2013, 이화진, 2011),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연구들과 관련된다(박소영, 2013; 정순우, 2012). 교사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많아 대인관계가 중요시 되는 직업의 특성상 갈등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향성과 호감성의 성격이 학습되고 발달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중등교사의 성격 중에서 신경증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 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대상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은 교사는 긍정적인 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도전적인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이 높은 교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신경증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낮고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성실한 사람일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Campbell-Sills, Cohan, & Stein, 2006), 신경증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고 외향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지선, 이영애, 2012),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과소통제집단과 과잉통제집단은 성실성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등과 관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5요인 성격 중에서 성실성만이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이 높을수록,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이 낮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들(박소영, 2013; 신소정, 2008; 신강현, 허창구, 이철희, 이종현, 2010; Armon, Shirom, & Melamed, 2012; Kokkinos, 2007)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성실성이 높을수록 책임감이 있고 근면하며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들(박소영, 2013; Costa & McCrae, 1985; Swider & Zimmerman, 2010)과는 같은 결과를 보인다. 또한 성실성이 높은 집단은 비인간화 수준이 낮고 성취 수준이 높으며(Kokkinos, 2007)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박소영, 2013; 박영, 이영애, 2012; 박지영, 2010; 박현숙, 이영애, 2009; Arricale, 2001)과도 관련된다. 본 연구결과 교사의 성격 중에서 성실성에 따라 심리적 소진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때 학교교육에서 교사들이 성실성을 나타내는 특징들인 자기효능감이 높고, 질서를 잘 지키며, 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자기훈련을 계속 해 나가며, 부지런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John, Robinson, & Pervin, 2008).

넷째, 본 연구에서 교사갈등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은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스트레스 경험을 중요하고 흥미있는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조절 기제를 활용하여 회복력을 높이기 때문에 교사갈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iserandino, 2012). 이민정(2014)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와 반대되는 교사갈등이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교사갈등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교사갈등이 심리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사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높이고(구분용, 김영미, 2014; 김현숙 2013; 최인선, 2013), 교사의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은 비인간화, 정서적 고갈과 관련 된다고 한 연구(김보수, 2012; Papastylianou, Kaila, & Polychronopoulos, 2009),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정서적 고갈을 높이며 학교환경 또한 비인간화를 높인다는 연구(Dorman, 2003) 등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김지선, 이영애, 2012; 김인경, 2012). 이렇듯 자아탄력성은 교사갈등을 낮추고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경험을 통해 발전될 수 있는 개인 능력으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중등교사의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향성과 호감성은 교사갈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향성은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고 상호작용하는 것이고(John, Robins, & Pervin, 2008), 호감성은 외향성처럼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Graziano & Eisenberg, 1997) 이 두 성격특성은 모두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갈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속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외향성과 호감성이 높은 교사들의 경우 갈등이 생기더라도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잘 풀어가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외향성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박소영, 2013; Zellars, Perrewé, & Hochwarter, 2000), 내면의 긍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한다는 연구(임지윤, 도승이, 2014) 등과 관련된다. 또한 외향성과 호감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며 심리적 소진을 완화시키고(이화진, 2011; 이혜련, 2013),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정순우, 2012), 갈등 빈도가 높을수록 외향성과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Dijkstra, van Dierendonck, Evers, & De Dreu, 2005) 등과 관련된다. 이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전체적인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외향적이고 호감적인 성격의 교사는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의 경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중등교사의 성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경증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나타났고, 개방성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비극, 역경, 고난으로부터 회복하거나 지속적인 생활스트레스원에 적응하는 능력으로(Tugade & Fredrickson, 2007) 신경증적인 성격인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심리적 소진을 낮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개방성은 탐구적인 지성으로 상상, 예술적 취향, 긍정적 정서, 모험, 아이디어,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소진을 낮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방성은 긍정적 정서가 강한 성격특성으로 긍정적 정서는 스트레스원에 쉽게 적응하게 함으로써 자기통제 능력을 키운다는 연구(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신경증적 성격이 낮고 개방성이 높은 성인들은 더 높은 안녕감을 보고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스트레스원에 더 잘 대처한다는 연구(McCrae & Costa, 1986), 긍정적 정서는 정서적인 고통을 잘 조절하도록 돕고 회복과정을 촉진시킨다는 연구(Ong, Bergeman, Bisconti, Wallace, 2006) 등과 관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등교사의 갈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중등학교 교사들의 갈등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며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김현숙, 2013)와 관련된다. 이리

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아탄력성은 중등학교 교사들의 신경증적 경향성은 줄이고 개방성은 높이며, 교사갈등과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등학교 교사들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더불어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그동안 교사의 성격과 심리적 소진, 교사갈등과 심리적 소진,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 등의 연구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격, 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성격에 따라서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이 달라지며 교사갈등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갈등을 낮추고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향적이고 호감적인 성격이 필요하며 성실성은 교사의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중등학교 교사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외향적이고 낙적천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격은 특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기조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높임으로써 교사갈등과 심리적 소진을 유연하게 완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성격에 따라서 심리적 소진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교사갈등이 심리적 소진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갈등요인은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교장·교감과의 관계, 행정실과의 관계 등 다양하다. 이는 중등학교 교사들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학교현장에 행정업무 T/F 팀이 만들어져 있지만 과도한 업무들을 해 나가는 것은 행정업무 T/F 팀이 아니라 교사들 자신이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작 교사들은 업무와 관계의 갈등 속에 놓여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교사 본연의 업무인데 정작 교사들은 여러 가지 갈등요인으로 인해서 지치고 심리적인 소진이 나타난다. 이러한 교사들의 현실이 본 연구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학교와 관련되는 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는 교사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교사의 성격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갈등 또한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중등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깊은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교사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이나 교육적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우리나라 전체 교사들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인 관계가 지역과 연구대상을 달리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들의 성격, 교사갈등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유발요인으로 교사갈등을 살펴보고 심리적 소진의 감소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들에서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유발요인과 감소요인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주현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울과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분용, 김영미 (2014). 중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7), 275-306.
- 권동택 (2008). 초등학교 교사소진과 학교조직 관련 변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논단, 7(2), 41-57.
- 권혁제 (2001). 고등학교 교사의 갈등요인 및 관리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두천 (1995).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소진의 관계.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수 (2012).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은 (2011). 초등학교 교사의 사회적문제해결방식과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경 (2012). 음악치료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숙, 유금란 (2010).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53-69.
- 김정휘, 김태욱 (2006).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탈진: 교육의 위기. 서울: 박학사.
- 김지선, 이영애 (2012). 놀이치료사의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4), 567-585.
- 김해경, 서경현 (2013).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와 회피성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0(11), 107-127.
- 김현숙 (2013). 교직경력에 따른 중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길운 (1992). 교사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중등교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기민 (2000).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연구 : 중·고생의 학교폭력실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소영 (2013). 성격 5요인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 이영애 (2012). 놀이치료 초심자의 성격특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2), 179-195.
- 박은혜, 전셋별 (2010).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교원교육연구, 27(1), 253-275.
- 박지영 (2010). 아동상담자의 성격특성, 정서능력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숙, 이영애 (2009). 놀이치료자의 5요인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35-47.
- 박현주, 김봉환 (2010). 상담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33-52.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은영 (2004). 유치원 교사의 성격특성과 갈등관리 특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선희, 하대현, 최형주 (2004). 내·외재 동기유형과 Big-five 성격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0(1), 125-150.
- 신강현, 허창구, 이철희, 이종현 (2010). 외향성과 신경증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445-462.
- 신소정 (2008). 교사의 소진과 5요인 성격 특성과의 관계.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희, 김지은 (2007). 영아 및 유아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근무여건,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47-164.
- 안창규, 이경임 (1996). NEO-PI-R의 임상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 65-79.
- 안창선, 심미옥 (2003). 초등 교사의 교직에서의 갈등 인식 실태. 교육연구, 20, 183-223.
- 여태철, 박정태 (2005).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충실 지각과 성격 특성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2(3), 189-213.
- 이민정 (2014).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 소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철, 주철안 (2007). 중학교 교사의 동료교사에 대한 갈등관리 유형의 실증적 분류 및 활용경향 연구. *한국교육연구*, 24(3), 25-50.
- 이성은 (1995). 교사들이 경험하는 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13(1), 183-207.
- 이영란 (2006). 상담자의 소진(Burnout)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식 (2001). 학교경영과 자율장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희, 이주희 (200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45-175.
- 이정규 (2007). 교사의 성격 5요인과 사고양식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5(2), 81-103.
- 이주연, 지명원 (2012).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자아탄력성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191-200.
- 이지연, 황현숙, 장진이 (2012). 중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0(2), 495-515.
- 이혜련 (2013). 성격 5요인 모형(Big Five)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진 (2011). 초등교사의 5요인(Big Five) 성격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과의 관계. 인천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윤, 도승이 (2014). 교사의 정서노동이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연구*, 31(1), 197-220.
- 정법석 양기동 (2008). 성격유형이 갈등관리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24, 125-154.
- 정순우 (2012). 중등교사의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심리행동연구*, 4(2), 1-24.
- 주동범, 임성택 (2002). 교사 효능감 관련 변인의 분석: 직무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0(2), 251-270.
- 지원명, 이주연 (2012). 정서노동자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2), 249-263.
- 최인선 (2013).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양 (2004). 초등교사의 갈등 요인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창구, 이철희, 신강현, 이종현 (2010). 외향성과 신경증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445-462.
- 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Allport, G. W. (1966). Traits revisited. *American Psychologist*, 21, 1-10.
- Armon, G., Shirom, A., & Melamed, S. (2012).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s predictors of changes across time in burnout and its facets. *Journal of personality*, 80(2), 403-427.
- Arricale, F. (2001). *A study of burnout of counselors in college counseling cent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New Jersey.
- Campbell-Sills, L., Cohan, S. L., & Stein, M. B. (2006). Relationship of resilience to personality, coping, and psychiatric symptoms in young adul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4), 585-599.
- Chou, C., & Bentler, P. M. (1995). Estimates and tes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37-55). Thousand Oaks, CA: Sage.

- Collins, W. A., Laurse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Connor-Smith, J. K., & Flachsbart, C. (2007).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cop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6), 1080-1107.
- Costa, P. T.,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 and NEO Five inventory (NEO 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ulter, M. A., & Abney, P. C. (2009). A study of burnout in international and country of origin teacher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5*(1), 105-121.
- Dijkstra, M. T., van Dierendonck, D., Evers, A., & De Dreu, C. K. (2005). Conflict and well-being at work: the moderating role of personal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0*(2), 87-104.
- Dorman, J. (2003). Testing a model for teacher burnout.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al & Developmental Psychology, 3*, 35-47.
- Eysenck, H. J., & Eysenck, M. W.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A natural science approach*. New York: Plenum.
- Fernet, C., Guay, F., Senécal, C., & Austin, S. (2012). Predicting intra-individual changes in teacher burnout: the role of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and motivational facto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8*, 514-525.
- Ghorpade, J., Lackritz, J., & Singh, G. (2011). Personality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burnou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6), 1275-1298.
- Goldberg, L. R. (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1), 26-43.
- Graziano, W. G., Eisenberg, N. H. (1997). Agreeablenes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795-82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Hampton, D. R. (1987).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 Hancock, G. R., & Mueller, R. O. (2006).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cond course*.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s,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ock, R. R. (1988). Professional burnout among public school teacher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17*(2), 167-189.
- John, O. P. (1990). The "Big Five" factor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s.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66-100). New York: Guilford Press.
-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John, O. P., Robinson, R. W., & Pervin, L. A. (2008). *The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 - 1079.
- Kokkinos, C. M. (2007). Job stressors, personality and burnout in primary school teacher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1), 229-243.
- Langford, C., & Glendon, A. I. (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Work & Stress, 16*(4), 316-33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ongaretti, L., & Wilson, J. (2006). The impact of perceptions on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29*(4), 3-15.
- Maddi, S. R., & Kobasa, S. C. (1984). *The hardy executive*. Homewood, IL: Jones-Irwin.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in burnout of Psychology, 52*(1), 397-851.
- Maslach, C., & Jackson, S.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99-113.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the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12*, 99-113.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397-422.
- McCarthy, C. J., & Lambert, R. G. (2006). Helping teachers balance demands and resources in an era of accountability. In R. Lambert & C. McCarthy (Eds.), *Understanding teacher stress in an age of accountability* (pp. 215 - 226).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McCrae, R. R., & Costa, P. T.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2), 385-405.
- McCrae, R. R., & Costa, P. T. (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5), 509-516.
- Miserandino, M. (2012). *Personality psychology: Foundations and findings*.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 Miskel, C., & Gerhardt, E. (1974). Perceived bureaucracy, teacher conflict, central life interests, voluntarism,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2*(1), 84-97.
- Ong, A. D., Bergeman, C. S., Bisconti, T. L., & Wallace, K. A. (2006). Psychological resilience, positive emotions, and successful adaptation to stress in later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4), 730-749.
- Owens, R. G., & Valesky, T. C. (2010). *Organizational behavior in education: Leadership and School Reform (10th ed.)*. Boston: Prentice Hall.
- Papastylianou, A., Kaila, M., & Polychronopoulos, M. (2009). Teachers' burnout, depression, role ambiguity and conflic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2*(3), 295-314.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 - 611.
- Schaufeli, W. B., & Bakker, A. B. (2004).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293-315.
- Schwab, R. L., Jackson, S. E., & Schuler, R. S. (1986). Educator burnout: Sourc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103), 14-30.

- Swider, B. W., & Zimmerman, R. D. (2010). Born to burnout: A meta-analytic path model of personality, job burnout, and work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3), 487-506.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53*(1), 99-109.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7). Regulation of positive emotion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at promote resili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 311-333.
- Zellers, K. L., Perrewé, P. L., & Hochwarter, W. A. (2000). Burnout in health care: The role of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8), 1570-1598.

원고접수일: 2015년 7월 2일
논문심사일: 2015년 7월 10일
게재결정일: 2016년 3월 10일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Teachers' conflicts, Ego-resilience and Burnout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Youngsuk Kim Bunha Yun Jinxi Michelle Li Hanik Ch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teachers' conflicts,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burnout,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s' conflict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burnou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used to test the data from 381 secondary school teachers (169 male teachers and 213 female teachers).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included big 5 personality test (NEO Five-Factor Inventory), teachers' conflicts, ego-resilience and Maslach Burnout Inventory. The results revealed that both neuroticism and teachers' conflicts positively affected burnout, while consciousness and ego-resilience negatively affected psychological burnout. Moreover, neuroticism was negatively related to ego-resilience, while extraversion, openness and agreeablenes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eachers' conflicts. As for the mediating effects, ego-resili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neuroticism and burnout, openness and burnout, as well as between teachers' conflicts and burnout. In addition, teachers' conflicts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extraversion and burnout, as well as between agreeableness and burnout. Finally, we provided a discussion on the research findings,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words: Personality, Teachers' Conflicts, Ego-Resilience, Burnout